

사전협의회 보고서

보고자 : 안승문(인)

일시	10월 28일 수요일
장소	의정부 녹양중학교
대상 지역	의정부, 연천, 포천, 동두천
참가인원	학부모 35명 정도
협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이 학교에서 잘못했을 경우 단체로 체벌을 받는 경우 이해가 되지 않음 체벌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규제를 해야 함• 지켜야 할건 지켜가면서 인권이 있음 지키는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자율, 참여만을 강요할 수 없음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학생들이 학교에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서로 존중하고 함께 규율하는 가운데 체벌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함•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선생님들의 교육 방법이 변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학생수가 너무 많음. 학생수를 외국처럼 25명 수준으로 하지 않으면서 선생님들에게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함.•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주면 좋으나 이 조례 제정으로 얼마나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올지 의문임. 중학교는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훈련소라고 해도 과언 아님.• 인권이 보장되려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특기를 살리고 싶은 학생들은 살려주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성적만을 강요하지 않아야 함.• 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체벌임. 학교마다 남자선생님들이 많지 않아 남자선생님들은 학생부에 계시고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체벌을 택하기 쉬움• 여자 교사들이 드센 남학생들을 다루는 데 익숙치 않아 인권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음. 학교마다 남녀 교사가 균형 맞도록 남자교사의 비율이 늘어야 함.• 체육시간에 체육교사가 학생들에게 과격한 말을 하거나 언어 폭력에 가까운 언사를 보이는 경우가 많음. 체육 시간은 점수와 관계 없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어야 함.• 예체능 수업시간이 아이들의 욕구를 풀고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수행평가를 보는 시간으로 전락하여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예체능 시간이라도 아이들이 즐겁게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음.• 교원평가는 성적 같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적인 면에서의 평가가 되어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함.• 교사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협의보고서

보고자 : 박 진 (인)

일시	2009. 11. 3.(화)
장소	안양 비산중학교
대상지역	군포, 의왕, 안양과천
참가인원	학부모 : 30명
협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학생의 문제역시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봐야 한다.• 조례가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문제가 생긴 학생이 봉사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보호자와 대동해야 할 경우, 부모 등 보호자가 아니더라도 믿을 수 있는 동반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학교 수업중 선도(상담)교육 가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이럴 경우 학생에게 낙인이 찍힌다. 배려가 필요하다.)• 체벌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필요하다.• 학생간 폭력문제 발생할 경우 피해학생이 전학을 간다. 오히려 가해학생이 전학을 가야하는 것 아닌가. 이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학생집단의 경우, 모범생등이 아닌 소위 문제아로 분류되는 집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한다.• 입시체제라 하더라도 협동심을 배우고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학칙.교칙을 교사들이 실행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소수집단 청소년들을 만나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사전에 조례에 대한 사전정보가 있었으면 좀더 풍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전협의보고서

보고자: 박진 (인)

일시	2009. 11. 2.(월)
장소	안산 광덕중학교
대상지역	안산, 시흥
참가인원	학부모 : 30명
협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권의 침해자는 교사다. 라는 식으로 들려서 우려된다. • 실질적 구제조치가 있어야, 자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에서 풀려날 수 있다. • 학생 권리 및 교권보다 공교육정상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 교육보다 자신의 멋을 살리는 학생들을 위한 조례인가?(우려되는 부분) • 두발을 통제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잘하고 컸다.(너무 강제적인 학교조례) •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행복한 조건을 발표하자 • 학생체벌이 교사 사심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 조례는 꼭 있어야된다. -교사의 체벌이 심할 때 재제가 가해져야한다. 이런 경우 교사에 대한 징계가 있을 때 과정과 결과를 학부모들도 알게 해야 한다. 교사체벌시 학교의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 인권보호를 위한 기관이 꼭 학교나 교육청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어서, 쉽게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학생의 체벌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담소가 학교나 지역의 요소요소의 설치되길 바란다) • 학생 징계 문제에 관해서, 학생들만 독자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치단체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는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 • 학생자질성향-개인의 도덕성은 우려된다 • 교원자질인성은 정말 중요하다 • 학생문제가 발생하면 강제적인 학생인권침해가 심각하다. • 해결방안-교육청에서 일정한 학부모에게 교육을 원하며 학교에 상주하는 학부모일 일교사필요...(전담-재판관역할)-공정한 역할을 할수있는 사람이있어야된다.(학교랑 관련없는부모가 더 적당하다) • 기관내 상담소 설치, 학생자치단체 만들기,공정한 평가자상주 • 학교내 왕따가 있어서는 안된다(학생들의 아픔은 오래간다) • 학생따돌림문제가 심각해도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상담을못하는데... • 강제규정있길 바람(학생과 교사, 학생과학생) - 실효성있는 강제규정 필요 • 문제학생의 도덕적인 죄의식을 생각할 수있는 교육이 우선이다 • 중고등학교도 공부보다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학생인권을 세우도록 교육법을 만들자. (인성교육을 강화하자) • 공부우선인 교육이 아니고 도덕성과 인성을 우선하는 교육이 필요 • 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고 교사의 위치를 올려주어 존경받을수있는 조건이 필요 • 교사를 무시한 학부모의 행동은 학생인권을 우선한 것이 아니니 학생 인권 존중할 때는 조심 • 문제가 발생시 전문상담교사가 있어야 되며 담임과 학부모가 할수없는 부문까지 신경써주길 바람 • 인권조례가 도입되면 학생들에게 알려야되며 학부모도 교사가 되어야된다. 	

사전협의보고서

보고자: 오 동 석 (인)

일시	2009. 10. 28
장소	용인 성지중학교
대상지역	용인, 평택, 안성
참가인원	학부모 : 25명
협의내용	
<p>1. 두발과 복장 규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염색을 원하는 학생은 소수이다 - 너무 엄격한 규제와 기준이 문제 - 학교 자율성에 맡겨야 - 요즘 아이들 개성이 강한데,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을 자극할 수 있다. - 학생답게 두발 규제해야 - 학교마다 규칙으로 해야 - 자율적으로 해야 - 부모 등의 의식을 고려해야 <p>2. 체벌에 대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와 학생의 대화를 통해 인정하는 선에서 허용 - 교사가 감정을 드러내는 문제가 있지만, 교사에게 사법권을 부여해야 - 자유를 준만큼 책임을 지워야 - 체벌 필요성 - 상담 선생님 배치 - 부모 협조 - 신설 학교는 성적 낮은 학생 비율이 높는데, 자유분방하지만 두발 규제에 대해 욕설을 하는 등 학교분위기가 좋지 않다. - 사회 봉사, 인성교육 등에 대한 집중 교육 필요 - 모범생은 상관없으나, 체벌을 금지하면 일탈행위를 막을 수 없다 - 자신의 자식을 체벌로부터 배제하려는 부모의식도 문제이다. - 감정조절이 필요하다. - 학생들이 ‘선생님 한 번 때려 보세요’ 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학부모와 통화해서 체벌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p>3. 야간자율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자율학습 필요하다 - 왕따 등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 그것의 극복은 운동을 통해 가능할 터인데, 체육시간 없다. 1-2시간 운동의 기회를 줘야 한다. -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예외적으로 불참을 허용해야 한다. - 사교육을 없애려고 시작한 의미가 있다 - 교사의 인권 측면에서도 학생에게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 - 야간자율학습 없으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일탈위험성이 증대된다. <p>4. 무작위 소지품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대한다. <p>5. 학생회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자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스스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축제 개최 여부를 결정할 학생들에게 맡겨야 한다. 	

사전협의보고서

보고자 : 오 동 석 (인)

일시	2009. 10. 30.
장소	수원북중학교
대상지역	수원, 화성, 오산
참가인원	학부모 : 20명
협의내용	
<p>1. 두발 및 복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 생각을 어른들이 불편해 하는 것 같다. 아이들 생각을 좀 더 반영했으면 한다. 유독 중고 6년간만 제약을 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 용모가 ‘학생다워야’ 하며, 그것이 ‘보기 좋다’. 또한 경제적 이유로 교복이 필요하다. - ‘학생인권조례’를 처음 접하는데, 교복은 일제의 잔재로 알고 있으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에게 새로운 전망을 제시해 주어야 하고, 두발 규제가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된다. 두발이 길든 짧은 상관없는데 학교의 규제 때문에 오히려 신경을 쓰게 된다. 다만 교사와 학부모와의 협의는 필요하다. - 학생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외국과 비교해도 규제 필요성 적다. - 염색도 허용해야. 학교 다닐 때만 규제에 따름, 방학 때는 염색까지 자유롭게 - 두발 규제 때문에 전학을 요청하는 학생들도 있다. - 학생들 요구가 우습다. 학생들의 문제는 주입식 교육이 가장 크다. - 우리 사회는 과도기이며, 3주체의 합의과정 필요 - 학교에서 3주체 합의로 두발자유화를 결정한 학교를 다니던 자녀가 전학으로 인해 두발 규제를 받게 되었는데, 처음엔 규제에 반대하다가 나중에 찬성하였다. 짧은 게 위생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 교복을 자율화. 오히려 규제가 일탈을 부를 수도 있고, 규제 때문에 학교를 옮기기도. - 교복 자유화에 반대. 사복 입은 경우 일탈 위험성. - 교복과 사복의 공존도 찬성 <p>2. 야간자율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시교육의 문제 - 자율학습 완전 폐지 - 고교생: 대입 준비해야 하는데, 자율학습 없으면 낭비되는 시간 있음. 어떤 분들은 과외를 위해 자율학습 폐지해야 <p>4.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의 행복이 중요하다 - 학생복지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상담이 중요하다. 	